식물 · 정원에 대한 이해 · 정보 제공

전주시, 올해 처음으로 녹색 교육 '숲 정원학교' 실시

2026년까지 초록정원사 양성 목표 정규 · 일반 동시 진행

시민들이 스스로 나무를 심어 가꿀 수 있는 초록정원사로 양성하는 숲 정원학교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식물과 정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스스로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160명의 초록정원사 양성을 목표로 '전주시 숲 정원학교'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숲 정원학교는 '초록정원사 과정'과 일반강좌인 '찾아가는 숲 정원학교'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초록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문화 정착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올해 60여명의 초록정원사가 배출 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숲 정원학교 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관, 마을공동체 등 정원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교육대상자 20여명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는 소수의 정원 전문가 양성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정원교육을 접하게 하는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7월 5일까지 숲 정원학교를 운영할 위탁교육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교육기관과 함께 오는 7월 하순부터 전주시 숲 정원학교에 참여해 교육을 받을 시민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주시 천만그루나무심기단 관계자는 "초록정원사가 양성되면 내 집 정원, 마을 정원 등을 스스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나아가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등에 대해서도 시민이 주체가 돼 가꿔나갈 수 있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의 자율관리 체계가 마련돼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장마 시작… 비오는 전주 26일 전주시 일원에 시원한 비가 내리자 전북대학교 인근 백제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도로를 지나고 있다.

정신과 치료 권유 친형 살해

40대 법정서 징역 5년 선고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경 익산 시내 자택에서 흉기로 친형 B모(67)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어떠냐'는 B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혈족인 모친과 형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하청업체 직원 냉각탑 추락사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냉각탑 내부로 추락해 끝내 숨졌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경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수심 5m 냉각탑 내부에 하청업체 직원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배수작업을 통해 냉각탑 내부에서 A모(55)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A씨는 8m 높이 냉각탑에 올라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화물차 적재함 턴 80대 체포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중인 공구를 훔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8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 45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건물 앞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시가 45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행사장서 금품 훔친 50대 검거

행사장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4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행사장에서 의자에 있던 가방과 지갑등 총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취 · 창업 촉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 홈 IoT' 주제 연합캠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인재 육성으로 ICT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취·창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진흥원은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대학생과 일반인 38명을 대상으로 '2019년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발굴 연합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용인·충북·송도 4개 지역 ICT 디바이스랩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합캠프는 지난해 전주를 시작으로 해마다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열린다.

'스마트 홈 IoT'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디자인 씽킹 교육 △IoT 제작실습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구체화 △성공 창업사례 세미나 △아이디어 공유 및 모의 펀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발굴부터 창업 시뮬레이션까지 기술창업의 모델을 개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특히, 팀별 아이디어 모의펀딩을 통해 최종 선정된 2팀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며 추후 우수 아이디어 제품화 지원 등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ICT 기술을 접하기 어려웠던 학생과 일반인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사업화 과정을 체험하며 창업에 대한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오는 7월~8월 우석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캠프를 개최하고 이후 ICT 분야 창작 문화 활성 촉진 및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스마트 디바이스톤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양파농가 氣 살리기… 양파 판매 · 장아찌 담그기 무료특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역민 대상 양파판매전과 양파장아찌 무료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파 소비를 촉진해 어려워진 양파 농가를 돕는 한편, 소비자들은 값싸고 질 좋은 양파를 먹자는 취지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양파는 평년대비 30%이상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도매가 1kg당 양파가격이 평년대비 30~40%이상 폭락했다.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었을 뿐 아니라 10㎝이상 큰 구(救)가 많이 출하되는 것도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26~27일 양일간 '고산 양파 판매전'과 '양파장아찌 담그기' 무료특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료특강에서는 양파의 손질과 보관법에 대한 팁을 소개하며 다양한 양파 요리법에 대해 알게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역민 대상 양파판매전과 양파장아찌 무료 특강을 개최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올해 작황이 좋아 유난히 크고 맛좋은 양파가 많이 생산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센터는 지역민의 어려움에 앞장서 동참하며,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략기획팀(063-254-3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건협 전북지부-새만금항공, 건강증진 돕기 업무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이하 건협)와 새만금항공이 항공드론 관련 정보제공과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25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건협 한석희 본부장과 새만금항공 강선규 본부장은 양기관의 공통 발전을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협 전북지부는 직원 및 가족, 회원의 건강검진 등 진료를 실시하고 새만금 항공은 건협 직원 및 가족들에게 최첨단 항공드론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북지방경찰청은 인질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인질사건 전문대응팀 수사관 워크숍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인질 발생 전문 대응체제 구축

전북경찰청, 수사관 워크숍 개최

전북경찰이 인질상황 발생 관련, 전문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인질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인질사건 전문대응팀 수사관 워크숍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인질사건 전문대응팀은 팀장, 협상 및 분석요원, 통신·금융수사 전문요원, 가족 보호요원 등 73명(지방청 13명, 경찰서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인질사건 협상 이론 및 사례를 토대로 한 상황별 수사기법을 논의, 성공적인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전북경찰은 교육자료를 제작해 인질사건에 대한 긴밀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경찰서 전담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신 전북청 형사과장은 "인질 범죄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기법 공유와 가상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 및 범인 검거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영장심사관 제도 정착 위해

전북경찰청, 영장실무교육 실시

전북경찰이 인권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영장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법수사부서 수사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주관 영장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 취지, 영장발부 요건과 세부기준, 영장기각·불청구 사례 등 영장업무 전반을 수사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장심사관은 경찰수사의 지난해 3월 경찰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찰전문가를 말한다.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에게 주어진다.

전북청은 지난해부터 완산서 영장심사관을 최초로 시범운영 한 뒤, 올해 전북청, 군산서로 확대 시행했다.

이날 참여한 A 수사관은 "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기 전 사건관계자가 아닌 제3자적 시각에서 검토를 하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도움된다"고 말했다.

전북청 이상주 수사과장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조직개편 단행

5개 과 · 15개 팀 '신설'

전주시가 인권과 동물복지, 돌봄 기능 등을 강화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5국 2구 65과 2직속 8사업소 35동 391팀'의 현행 조직에서 5개 과와 15개 팀이 늘어난 '5국 2구 70과 2직속 8사업소 35동 406팀'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사람·생태·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4대 시정 핵심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인권담당관과 야호아이놀이과, 동물복지과, 치매안심과, 스마트시티과 등을 신설한다.

먼저 시는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행정 구현과 인권 전반의 종합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책임질 인권담당관을 만든다.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려견 산업과 동물보호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해 기존 동물복지팀의 기능을 확대해 동물복지과를 신설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해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과를 신설하고,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 도시정보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시티과도 설치한다.

시는 신설되는 5개과 외에도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맑은공기도시를 만들고자 기존 에너지전환과와 푸른도시계획과를 각각 맑은공기에너지과와 천만그루정원도시조성과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했다.

이로써 전주시 공무원 정원은 2120명으로 38명이 늘어난다. 증원인력의 상당수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배정 인력이다. /송효철 기자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

전주시, 올 3억1200만원 지원

농가에 폭염 등 대비 시설 설치

전주시가 원예작물 생산 농가의 시설하우스 자동환경제어 시설을 지원하고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총 3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설하우스 지중냉온풍시설 △포그분무시스템 △자동환경제어시설 △밭작물 관수자재 등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여름철 폭염 시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5℃ 정도 낮춰 고온장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포그분무시스템을 설치하면 하우스 내 온도를 낮춰 적정 생육온도로 작물의 병해가 감소되고 관수 및 방제작업 시 노동력도 줄일 수 있다.

일례로, 포그분무시스템을 설치한 색장동의 한 시설하우스 애호박 재배 농가의 경우 생산량이 10% 정도 늘어나고 노동력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과수 하우스에 땅 속 냉기와 열기를 이용한 지중냉온풍시설을 설치한 복숭아 재배농가의 경우에는 수확시기가 2주 정도 앞당겨졌다. /송효철 기자